

니혼멘뿌 - 사탕수수로 데님개발

니혼멘뿌(日本綿布)는 사탕수수의 섬유로 데님을 개발하고 「슈거·케인(Sugar Cane)」이라는 브랜드로 금년(2001년) 9월부터 시장에 신상품을 내놓기로 하였다.

슈거·케인(사탕수수)에는 “오끼나와”산과 “하와이”산의 2가지가 사용되고 있어, “슈거·케인·오끼나와”는 일본사람의 기호나 전통을 가급적 살리기 위하여 색깔이나 태를 결정하였으며, “슈거·케인·하와이”는 그 동안 이 상품을 개발해오면서 알게 된 가장 좋은 생각과 태를 나타내고 있다.

사탕수수섬유는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정제할 때 생기는 찌꺼기를 원료로 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자연으로 리사이클 되는 자원이며, 조미료의 주성분인 아미노산의 원료이기도 하다.

사람의 신체는 70%가 물이고, 그 이외의 대부분은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은 보습, 약(弱)산성, 항균방취, 대전방지 등의 기능이 있으며, 의약품이나 식품에 응용되어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어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한 캐주얼 소재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